

# 사설

한때 6만명에 이르던 고성지역의 인구가 현재는 절반인 3만명선으로 크게 줄었으며, 지금도 계속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은 지역주민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고성군처럼 농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소규모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현상은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자리와 보다 나은 교육 및 주거환경을 찾아 떠나는 주민들에게 '애항심'을 호소하며 만류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인구유입을 위해 꾸준하고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경우 이러한 인구감소 추세를 다소 줄일 수 있으며, 나아가 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주거환경 개선이다.

실제로 고성군청 일부 공무원들의 속

초 거주 문제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한데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거환경의 열악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고성에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기 때문에 속초에서 산다'는 공무원들을 고성으로 유입시키기 위해서

는 이들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주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행정에서 직접 지으라는 말은 아니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면 된다.

그런데 최근 고성군이 토성도시지역의 공간리계획 변경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아아진지구에 5층 이상의 공동주

택을 지을 수 있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안이 강원도에서 승인될 경우 아아진지구에서는 아파트 등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전혀 지을 수 없게 돼 인구가 늘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막아버리는 꼴이

되고 만다. 이는 그동안 경동대 학생들과 군부대 및 지역 소재 기관 직원들의 주소이전 유도를 비롯해 전입자와 자녀 출산자들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꾸준하게 펼쳐온 인구유입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시정책을 맡고 있는 관련 부서 관계자는 '다른 이유는 없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정하지 않았다'고 했다니 참으로 기가막힌 일이다. 주변에 대기업의 거대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프랑스 파리처럼 예술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라든지 하는 그럴듯한 이유도 없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공동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공색한 답변이다.

더우기 아아진지구에 2종주거지역을 지정할 경우 그곳에 400여세대의 아파트를 짓겠다는 회사까지 있는데도, '난개발'을 이유로 고집을 부리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납득할 수 없다. 고성군은 지금이라도 간성이나 거진처럼 아아진지구에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 인구유입에 역행하는 도시정책

나는 호흡을 하며 활동하고 있다. 서울에서 30여분 걷노라면 와이셔츠는 까맣게 때가 낀다는 말은 60년부터 있었다. 남산에 오른 분이라면 서울을 내려다보면 스모그 현상을 체험할 수 있다. 잘 보이던 인천도 이제는 보이지 않더라는 것. 어느 광역시 또는 도시든 간에 오염상태는 유사하다. 중국에서 봄여름 가릴 것 없이 날아오는 불청객 황사, 여름엔 오존과 폭염 주의보, 그리고 홍수, 가을 겨울 없이 구름 안개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 기온이 낮으며 몇 년 전의 서울이 아닌 오염이 심각하다.

구미의 대표적 사례는 런던의 스모그(사고 후 1911년 안토인보고서 때면과 안개)를 비롯하여 로스앤젤레스 스모그(Smaze : Smoke + Haze=물안개)는 옛이야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실이라는 것.

1952년 12월 4일 런던의 날씨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하더니 초겨울 날씨가 그렇듯이 바람이 없고 기온이 역전(연기가 희석되어지면 피해를 줌)되어 하늘은 찌푸리고 안개가 짙게 덮였다. 이로 인하여 태양빛이 차단되어 분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고 습도는 80%가 넘었다는 것. 기온이 급속히 떨어져 정오에 마이너스 1℃를 나타냄에 따라 도시 전역에서 연료사용량이 급속히 증가 하였는데 이는 석탄이 주원인이었다.

석탄연소에 따른 연기가 정제되지 않은 채 대기중으로 배출 때마침 무풍현상이라 배출된 연기와 짙은 안개가 겹쳐 스모그로 형성하였고 연기 속에 있던 아황산가스는 황산안개로 변했다는 것. 이것은 런던 시민의 호흡기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 금강칼럼

김 종 식  
객원논설위원



## 녹색성장 혁신의 침병이 되자

이 현상이 7일간 계속되었으며 런던 시민은 호흡장애 질식으로 3주간 4천여명이 사망하였고, 그 후 만성질환으로 8천여명이 추가로 사망하여 1만2천여명 사망하였다.

사망원인으로 45세 이상은 중증환자가 되었고, 사망자들은 주로 노인 어린이들이었으며, 이후 심폐성 질환자가 급증했다는 것. 인류역사상 영국 런던은 안개와 석탄연기로 대기오염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보고된 곳이다.

산업혁명이전인 1273년에 에드워드 2세는 세계최초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석탄사용량을 줄이는 칙령을 발표하였고, 마침내는 1306년 같은 칙령엔 위반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수십 번 스모그현상이 일어나 피해를 입고 있다. 사후 약방문이나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지도 못하는 격이 되어서는 아니겠다. 노아(Noah)의 방주는 우리가 사는 이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만 운명의 방주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인

간은 인간의 질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자연의 질서는 자연이요 삼리만상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조화지전의 원리이다. 따라서 인간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순리인데 만약 이를 역행하면 절멸의 원칙으로 돌아간다는 것.

강 건너 불구경 아닌 뼈아픈 사실들을 가슴에 묻어두고 오염예방 및 방지를 위한 우리 모두가 지혜를, 에너지 절약 소비절약 재활용 대체에너지 녹색성장혁신에 몸소 실천에 옮기는 일만이 인간이 살아가는 순리라는 교훈을 얻었다.

때를 맞추어서 우리정부는 2012년 온실가스 의무감축량을 확정하고 Co<sup>2</sup>를 줄여야 기업이 사는 길이라고 했다. 규제대상 사업장별 이산화탄소 배출량 2만5천톤(업체기준 12만 5천톤)이상인 곳으로 366개에 그쳤지만 2014년엔 1만5천톤(업체기준 5만톤)으로 강화되어 관리업체도 500여개로 확대된다는 것.

EU(유럽공동체시장)의 경우엔 2000년 전부터 탄소 배출량을 할당할 한도를 넘겨

탄소배출을 감축시켰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 내다팔 수 있는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상황이다.

즉 단기적으로 폐열회수와 고효율 설비 도입 LNG사용량 확대를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 향상, 청정연료를 활성화하여 사용될 전망이라는 것.

장기적으로는 파이넥스(Finex)확대 탄소플라스틱 제조기술(석유화학)등 에너지 다소비업종 신기술 개발확산이 가속화 될 전망이라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와 같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세계시장이 펼쳐지는 상황과 상황을 바로 인식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이나 정부와 온 국민은 중지를 모아야할 분기점에 이른 것이다.

우리나라는 2025년엔 세계무역점유율 2.7%(1조 3133억\$)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HSBC 은행은 무역전망 분기보고서에 의함)라고 보고하였다.

아직도 나는 우물 안 개구리의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 눈을 들어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800만 동포들(이중국적 허용 확대 명예직 부여 확대 우리말학교 설치확장 문화전송사업, 고려인 및 조선족 찾기 운동 선거권 확대)과 협력하여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범국가적, 국민적으로 힘과 지혜를 모아 우리의 저력을 발휘할 때가 왔다는 것. 우리는 역경과 고난의 터널을 지난 우리이다.

이제는 세계인의 선도자가 되도록 노력과 실천으로 최대 최선을 다해 지구환경재난에서 나를 구제하는 녹색성장혁신의 침병이 되는 것이다.

### ◇편집국에서

개최시기와 장소를 변경해 새롭게 선보이는 제13회 고성명태축제가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거진1리 해변에서 열린다. 고성군과 명태축제위원회 관계자들은 이번 축제를 위해 밤잠을 설쳐가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축제는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고 행사 운영상에 특별한 문제점만 없다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다. 주민 모두가 축제기간 동안 가족들과 손을 잡고 행사장을 찾아 즐겨주기를 기대한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최낙관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